

안전 최우선의 정성





1. 천국도 지금 가을이야?

어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 그다음 해 유족으로 남은 천진난만한 초등학생 2학년이 직접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 작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쓰여 있었다.

“아빠! 천국도 지금 가을이야?”

피재자(被災者)가 일하고 있던 직장의 관리자가 이 작문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재해는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폐부 깊숙이 새겼다고 한다.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난날의 추억이 되지 않고, 깊은 슬픔과 함께 평생 마음속의 상처로 남아 있게 된다. 가족에게 석별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3만분의 1 이야기

오래전, 약 3만 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 있었던 일이다.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을 마음에 호소하는 실레이자 정성 어린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된 이야기여서 소개를 한다.

그날, 산업재해에 의해 사망한 유족의 빈소에 사죄와 조문을 하려는 경영진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이 방문하였다. 고인의 부인은 우유를 먹는 둘째 아이를 안고 있었다. 부인 옆에는 첫째 아이가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도 말라 있었고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문을 하고 부인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때 부인이 “지금 회사에는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회사의 경영진이 “협력사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3만 명입니다”라고 답하자, 부인은 “저의 남편이 죽은 것은 회사에 있어서 3만분의 1을 잃은 셈이네요. 그러나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부인에게 있어서도, 남은 2명의 아이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을 잃은 것이다.

경영진과 자리를 함께한 인사부장은 그 깊은 슬픔의 한마디 말을 듣고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했다.

인사부장은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가족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자 인생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이’아말로 안전관리 활동의 원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3. 자식을 잃은 부친의 바람

산업재해에 의해 독신이었던 자식을 잃은 부친의 씁쓸한 사례를 소개한다. 제조품종이 바뀐 것에 맞추어 6명의 작업자가 높이 6m 남짓 되는 제조기계의 조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재(被災)한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스페너를 떨어뜨렸다. 운 나쁜 계도 스페너가 제조기계의 주위에 설치되어 있던 판과 기계 사이, 깊이 2m 정도의 지하실로 떨어졌다.

지하실에는 제조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유압장치, 윤활유펌프, 유압·압축공기에 의해 작동하는 실린더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 기계가 몰려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책임자의 허가 없이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을 입구에 설치해 놓았다.

지하실은 작업자가 출입할 때 외에는 조명등을 꺼놓고 있었다. 그런데 피재(被災)한 작업자는 자신이 떨어뜨린 스페너를 주우려고 무단(無斷)으로 제조기계의 후방에 있는 입구를 통해 지하실로 들어갔다.

경영진과 자리를 함께한 인사부장은 슬픔의 한마디 말을 듣고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했다.





제조기계의 조정이 끝나 책임자의 지시에 의해 기계의 운전을 재개하였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은 피재자가 없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화장실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기계를 멈추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로 하였다. 좀처럼 피재자가 발견되지 않아 ‘혹시 지하실에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하고 지하실을 찾아보았더니, 실린더에 의해 작동하는 암(arm)에 피재자의 복부가 끼어 있었다.

피재자가 어두운 지하실에서 기계와 판 사이로 새어 들어온 희미한 빛을 통해 실린더 암의 작동부분에 떨어져 있는 스페너를 발견하였고 그것을 주우려고 했을 때, 실린더가 갑자기 작동하여 피해자의 몸이 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례가 끝난 후 직장의 관리자가 유족인 부친을 피해현장으로 안내하여, 사죄하고 재해의 발생상황을 설명하였다. 뜻밖에도 피재자의 부친은 “내 아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rule)을 지키지 않아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은 인정합니다”라며 이성을 잃지 않고 피해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마음을 피력하였다. “내 자식이 규칙을 위반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도 여러 규칙을 위반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직장에는 관리자, 감독자 등 책임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규칙 위반을 엄하게 시정했다면 이번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라고 전하였다.

부친은 아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을 것이다. 그

뜻밖에도 피재자의 부친은 “내 아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은 인정합니다”라며 피해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였다.



후 이 공장에서는 지하실 입구의 문에 자물쇠를 채우기로 하였다고 한다.

회사는 현업부문의 관리자와 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자가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설비대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식,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평상시의 개별지도를 태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다시금 하게 하는 재해였다.

4. 발생 재해에 대한 관리 · 감독자의 반성

관리 · 감독자의 안전연수회에서 직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직장의 책임자로서 어떤 기분을 느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평상시에 규칙 위반, 불안정행동에 대하여 엄하게 지도해 오지 않았다”는 반성의 말을 듣게 된다.

재해가 발생한 직후나 과거에 발생한 재해를 상기할 때에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평상시 직장관리 때에는 생산,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 품질의 확보, 비용의 절감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식하지만, 안전배려에 대해서는 태만하기 쉬운 것이 많은 직장의 엄연한 실태이지 않을까.

최근에는 불안정행동을 하는 작업자를 혼내는 관리 · 감독자가 적어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위험한 행동, 규칙 위반을 반복하는 자에게는 엄하게 질책할 수 있는 관리 · 감독자가 되지 않으면 매사에 철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을까.

평상시 직장관리 때에는 품질의 확보, 비용의 절감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식하지만, 안전배려에 대해서는 태만하기 쉬운 것이 많은 직장의 엄연한 실태이지 않을까.

5. 오른팔을 잃은 부자연스러운 생활

양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60세 남짓의 오른팔이 없는 남자와 그 부인이 우리 옆 테이블에 앉았다. 초등학교생인 우리 아이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자, 남자는 친절하게도 30살, 젊은 시절에 기계에 오른팔이 끼여 이를 잃어버렸다고 설명해 주었다. 잠시 후, 부부 앞에 주문한 돈가스가 각각 놓였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 앞에 놓인 돈가스를 나이프로 작게 잘라 주었다. 남편은 왼손으로 포크를 잡고 돈가스를 찌어 천천히 입에 넣었다. 극히 부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이 모습을 보고 '저 부부는 오랜 기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해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부자연스런 생활을 계속하여야 하겠구나'라고 느끼면서, 오체만족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나 자신의 행복을 실감하고, 사망재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후유장해가 남는 재해는 어떻게든 발생을 막아야 되는 일이라고 새삼 인식하였다.

우리들은 평상시 후유장해에 의한 부자연스러운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자신이 산업재해에 의해 후유장해가 남으면 어떤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를 상정하고,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직장관리에 의해 안전작업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6.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는 직장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직장의 분위기는 일전(一轉)하여 침울해지며, '어떻게 재해가 발생한 것일까?', '부상의 정도는?' 등 재해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기분이 동요된다. 다른 작업장에서도 재해의 발생을 슬퍼하면서 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다고 생각한다.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에서는 다른 작업장에 폐를 끼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작업을 그만두고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입원수속 지원, 현장 확인, 조사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대, 설명, 재해원인의 검토, 재발 방지대책의 실시, 안전관리 활동의 수정·보완 등 재해를 일으킨 작업장의 관계자는 매우 바빠지고, 침통한 생각으로 본래의 일을 희생하면서 많은 노력을 들여 대응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산업재해에 의해 후유장해가 남으면 어떤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를 상정하고,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직장관리에 의해 안전작업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하물며 인명(人命)에 관계되는 재해라면, 재해를 일으킨 작업장의 책임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될 수도 있고, 나중에 피재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피재자 가족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사람을 죽게 하였다는 고통을 안기게 된다.

재해에 의해 생기는 이와 같은 큰 부담을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것 없이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해방지 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하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재해에 의해 생기는 이와 같은 큰 부담을, '재해방지 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하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7. 재해가 없는 직장 만들기에 정성을

연수회 등에서 “우리들은 왜 일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으로부터 “생활을 위하여”라는 답변만이 돌아온다.

우리들은 회사의 일(노동)을 통하여 제품, 서비스를 세상에 제공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는 옛날의 칼, 화살 등을 만드는 장인처럼, 한 사람의 인간이 최초부터 최후까지 제품의 제조를 담당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하여 감사를 받는 기쁨을 몸으로 느끼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문명사회에서는 사람들 각자가 전문분야로 나누어져 수많은 분업에 의해 작업을 해나감으로써 훌륭한 완성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역할을 자각하고,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하게 사회에 제공하는 의식을 철저히 하며,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매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요구된다.

“일은 사람을 키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단지 만연(漫然)히 또는 마지못해하는 일은 사람을 키워 주지 않는다. 일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매우 소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할 때, 일은 부지불식간에 자신을 키워준다. 직업을 의미하는 독일의 Beruf, 영어의 Calling은 모두 어원적으로는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직업이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 나아가 직업을 인간 완성의 중요한 계기로 삼는 윤리적인 생각이 저류(低流)에 존재한다. 즉, 일은 매슬로우 욕구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노동)하는 목적의 원점은 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기업이 적정한 이윤을 올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 또한 당연히 요구되지만,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떠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근로조건하에서 일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행복을 유지하고 더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의 목적일 것이다.

기업경영도 경영자와 더불어 종업원의 행복을 유지하고 더 높이는 것이 가능해야 비로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고 국가 등에 공헌할 수 있다.

재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행복을 근저에서 파괴하고,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그 개인과 가족을 최대의 불행에 빠뜨리며, 경영과 노동의 기본적인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없게 한다. 재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두가 힘을 합하면 무재해를 계속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점은 경영자와 관리·감독자가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업무 중에서 마음이 담긴 진심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다.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등에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존재이다’라는 인간존중의 마음을 강하게 갖고 구성원 전원이 참가하는 진정 어린 안전관리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가족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존재이다’라는 인간존중의 마음을 강하게 갖고 구성원 전원이 참가하는 진정 어린 안전관리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